

토성면

토성면은 법정리 16개 행정리 33개 130개반을 형성하고 있다. 총면적은 119.74km²이다. 1991년 세계잼버리아영대회를 신평리(新坪里)에서 개최함에 따라 대대적인 개발이 추진되고 있어 세계 속의 한국을 부각시키는 약속의 땅으로 각광 받고 있다. 천진리, 청간리, 아야진리, 교암리, 백촌리, 운봉리, 학야리, 도원리, 성대리, 용암리, 신평리, 인흥리, 성천리, 원암리, 용촌리, 봉포리 마을이 있다.

▶토성면 시민기자 강성희(ruthcanada@hanmail.net), 김태극
 ※토성면에서 발생하는 아기자기한 소식이나 미담 등을 소개하는 시민기자를 모집한다. <문의 : 681-1666>

도원1리 '버섯마을' 한마음 잔치 열려

주민들 안녕과 소득증대 기원 ... 새로운 음식 맛보기 · 슬리퍼 멀리 날리기

표고버섯으로 유명한 토성면 도원1리 '도원 버섯마을' (이장 마수일, 56세)이 지난 18일 한마음 잔치를 열고 올 한해 주민들의 안녕과 소득증대를 기원했다.

마을회관 앞 공터에서 열린 이날 행사에는 80여명의 주민이 참가해 새로운 음식 맛보기, 슬리퍼 멀리 날리기, 율놀이 등의 프로그램으로 화합을 다졌다.

새로운 음식 맛보기 코너에서는 마을에 사는 양식조리사가 버섯탕수육과 오향갈비찜 등 평소 쉽게 접하기 어려웠던 음식을 선보여 주민들이 맛있게 먹었다.

또 슬리퍼 멀리 날리기 코너와 율놀이는 주민들이 두팀으로 나

뉘 경기를 하며 모처럼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올해부터 새롭게 이장을 맡은 마수일 이장은 "우리 마을은 오염되지 않은 천혜의 자연경관을 보유한 마을"이라며 "주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잘 사는 마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도원 버섯마을은 표고버섯과 산채(버섯, 두릅, 곰취 등), 송이 채취, 토종벌꿀 등의 특산품을 생산하고 있다. 또 떡메치기, 전통 놀이체험, 굴피액자 만들기, 옛날 순두부 만들기, 다도체험 등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연중 운영하고 있다.

최광호 기자



도원1리 주민들이 지난 18일 열린 한마음잔치에서 마수일 이장의 호루라기 소리에 맞춰 슬리퍼 멀리 날리기를 하고 있다.

김홍명 제8대 토성면 번영회장 취임

토성면 번영회장 이취임식 개최 ... 부회장 박두환 · 사무국장 이동환



지난 24일 열린 토성면 번영회장 이취임식에서 신규 임원들이 기념촬영을 했다.

토성면번영회는 지난 24일 토성면 복지회관 2층에서 번영회장 이·취임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 이임한 제7대

노장현 회장은 "4년의 임기동안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주신 모든 분께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제8대 신임 김홍명 회장은 취임사에서 "여러분의 뜻을 저버리지 않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다"며 "임기동안 만민 모두가 하나가 되어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하자"고 했다.

신임 집행부에는 부회장에 박두환, 감사에 윤달중 · 김창언씨가 선임됐다. 또 사무국장은 이동환, 총무는 황경철씨가 선임됐다.

박승근 기자

우리 마을 일꾼 ◇원암리 엄기인 이장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최선

"참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 해야죠." 토성면 원암리 엄기인 이장(55세)은 작년 초부터 '참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을 지역주민들과 합심해 운영하고 있다.

엄 이장은 이 사업으로 인해 지금도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고 있지만, 더 많은 투숙 관광객을 맞이하기 위해 대명콘도와 자매결연을 맺고 관광객을 위해 메밀꽃과 참두릅나무 및 찰옥수수 단지를 조성해 다양한 마을 소득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현재 마을 이름을 풀이한 '참살이 으뜸바위 마을' 표지석 주위에 하천부지 3천평을 임대받아 계절별 체험장을 조성, 수익사업을 극대화 하고 있다.

또 고성의 남쪽 관문을 오가는 관광객들을 위해 봄에는 두릅, 가을에는 메밀, 초여름에는 찰옥수수와 유채꽃 단지를 조성해 먹을거리와 볼거리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엄 이장은 대보름 맞이 행사 및 전통놀이사업, 경로사상을 기르는 어버이날 행사 등 마을화합을 위한 행사도 마련하고 있다.

또 마을 주민들을 위해 팔각정(원암정)을 세우고 주변에 3종 5가지 운동시설을 설치해 장수마을로 만들 계획이다.

옛 지명인 토성면 장천리가 고향인 엄 이장은 토성면 이장단협의회 사무장도 맡고 있다.

박승근 기자



토성면 연초순방

2011년 토성면 연초순방 및 현안사항 청취 간담회가 지난 24일 오후 4시30분 토성면 복지회관에서 열렸다.

박승근 기자

